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례자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선지서 강해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1. 바른생활
2. 바른교회
3. 바른국가

놀라운 부흥운동

(요나 3장 1 - 10절)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라’는 요나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급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건 못지 않은 기적입니다. 저들이 이와 같이 회개를 한 것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에 동참을 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여러번 나타나 있지만 니느웨처럼 한 도시가 완전하게 복음으로 돌아온 역사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이같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먼저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므로 인하여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스스로 자기를 낫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 를 일으키셨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바울 한 사람 까닭에 인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로 훌려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만 바르게 혼신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됩니다.

1.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요나는 자격 상실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요나는 하나님께 그 어떤 말로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1-2절).

똑같은 명령이 요나에게 반복되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요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창 12장).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아는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자기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며뭇거렸지만 하나님은 사십년이 지난 후에 멀기나무 속에서 그를 불러주시므로 이스라엘의 대 사역을 모세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습니다.

2. 두 번째 명령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두 번째 주신 사명은 첫 번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요나의 말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증거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의 치혜와 경험을 함부로 증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옳은 일

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시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3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는 두 번째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면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하나님 말씀은 능력과 활력이 있어서 사십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말이 온 니느웨에 퍼져서 모든 백성들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굉장히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면 소극적인 태도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차를 막론하고 굶은 배 옷을 입은자라”(5절).

니느웨 백성들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10절).

하나님이 멀망시키겠다고 하신 니느웨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교만이 있고 우상이 있고 악한 것이 꽉 찬 도시였습니다. 그런 니느웨를 멀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한 니느웨를 하나님은 멀망시키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니느웨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요나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했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성실하게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둘째,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셋째,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곧 바로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따른 합당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동반해야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넷째, 니느웨 백성들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악한 것과 강포한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2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내일(29일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여 온 제2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내일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홀에서 1교시 이종윤 목사의 시편 강해를 시작으로 개강한다.

본 교회 부설 교회개신연구원(원감: 윤찬오 장로)은 지난 2월부터 두 달여간 뜨거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계 신문에 광고 하며 안내 팸플렛을 발송하고 개별 전화를 하는 등 개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왔다. 12년의 긴 세월동안 우리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봉사의 손길로 진행되어온 목회자세미나는 이번 학기도 변함없이 많은 봉사의 순길이 준비되어 있다. 이들 봉사자들은

참석하시는 목회자들을 좀 더 편안히 모시기 위해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육신의 양식에 이르기 까지 세세한 부분을 챙기며 준비하고 있다.

지난 21학기동안 등록 연인원이 1만 명을 상회하는 교계의 권위 있고 전통 있는 세미나로 자리 잡은 서울교회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이번 학기에도 많은 목회자들을 모신 가운데 은혜로이 진행되어 금번 학기 주제인 '회개 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 한국교회가 갱신되는 큰 은혜누리도록 기도한다.

제25학기 목회자 세미나

제 1 교시(오후 2:00 - 3:30)	날짜	제 2 교시(오후 3:50 - 5:20)	
시편 연구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4월19일 4월26일 5월3일 5월10일 5월17일 5월24일 5월31일	초대교회의 회개운동과 교회부흥 휴강(식목일) 선지자들의 회개운동과 민족부흥 어거스틴의 회개와 신학적 발전 중세교회의 회개운동과 종교개혁 요나단 에드워드와 미국의 부흥 웨슬리의 회개운동과 한국교회의 부흥 1907년 회개운동과 한국교회의 부흥 오늘의 교회갱신을 위해 긴급히 해야 할 것 회개와 부흥의 신학적 이해	박수암 박사(장신대) 휴강 이태훈 박사(국제신학대) 유해룡 박사(장신대) 김홍기 박사(감신대) 오덕교 박사(합신대) 조종남 박사(명지대)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이종성 박사(학술원) 이수영 박사(새문안교회)

2004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개강

금주 중 강의일정에 따라 모두 개강

성도와 이웃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전,후반기 두 학기씩 갖는 열린 프로그램의 2004년도 전반기 일정이 금주 중 모두 개강해 10주간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평소 성경공부를 비롯한 좋은 강의를 듣기 원했으나 시간 장소 등이 마땅치 않아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이번 열린 프로그램은 좋은 배움의 장이 되

고 신앙의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직 등록을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은 속히 등록하여 좋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열린 프로그램의 자세한 시간표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되고, 등록은 사무국에서 하며 등록비는 과목당 10,000 원이다.

2004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 교목	월, 오전 10:00-11:00	이성득 목사	602호
	화, 오후 7:30-8:30	이태훈 목사	602호
	목, 오전 6:00-7:00	오정식 목사	602호
	금, 오전 6:00-7:00	이규정 목사	602호
교사양성반 교구일꾼성성반 주부대학 경로대학	주일, 오후 3:20-4:30	김운호 목사	609호
	주일, 오후 3:20-4:30	오정식 목사	607호
	화, 오전 10:00-오후 2:00	한상은 목사	602호
	목, 오전 10:00-오후 2:00	이용식 목사	101호
상시 개설	주일, 오후 12:40-1:30	한상은 목사	601호
	주일, 오후 1:00-2:00	김재진 목사	603호
	주일, 오후 2:30-3:40	이규정 목사	802호
	주일, 오후 3:20-4:20	이규정 목사	403호
1년4학기 개설	주일, 오후 1:30-3:00	박정선 장로	601호

2004년도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4월3일(토) 오후 2시 육사 교회당

우리교회가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비전2020 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이 오는 4월3일(토) 오후 2시 육사 교회당에서 거행된다.

장차 졸업과 함께 임관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게 될 이들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고, 이들을 통하여 진중에서 함께 생활 할 사병들이 복음화 된다면 이들은 옥토에 뿐만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세례 받는 모든 생도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거듭난 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한다.

고3과 수험생을 위한 결연 기도회

오늘 10시 40분 601호에서

오늘 고등부에서는 고3학생들, 학부모, 교사, 결연자들이 함께 고3과 수험생을 위한 결연기도회를 갖는다. 올 1년 대학입시와 취업을 위해 힘 써야 할 고3학생들과 수험생을 기도로 돋고 격려하기 위한 결연기도회에 많은 학부모와 결연자들의 참석을 바란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올 1년 고3학생들이 신앙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바란다.

벌써 잊으셨나요

매주 월요일 오전 교회 건물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온갖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반면, 어려운 이웃에게는 너무나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 아껴 쓰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아끼고 정리하면 교회당도 깨끗해지고 이웃 사랑도 더욱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은 반드시 8층 식당(만나홀)에서만 접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나누며 성도간의 교제도 되니 더욱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해충도 예방하기 쉬워지니 위생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합니다.

금주의 성구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니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닦이 울더라(요18:25-27)

As Simon Peter stood warming himself, he was asked, "You are not one of his disciples, are you?" He denied it, saying, "I am not." One of the high priest's servants, a relative of the man whose ear Peter had cut off, challenged him, " Didn't I see you with him in the olive grove?" Again Peter denied it, and at that moment a rooster began to crow.(NTV John 18:25-27)



**최난수 목사
(2교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과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모진 고난을 묵상하니 가슴이 저며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마땅히 형벌 받을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도 나의 자비와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형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 나누지도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내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시고 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 죄가 채찍이 되어 예수님의

사순 절의 기도



거룩하신 어깨에 상처를 내었고 내 죄가 가지 면류관이 되어 예수님의 이마에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처럼 모진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내 놓을 것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묵상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된 저희들 저마다 죄야할 십자가가 있는데 날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중인으로 들어 써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대속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니다. 아멘.

장로가정 탐방 - 성준경 장로가정편

주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길을 가기 위해 빠른 길도 쉬운 길도 택하지 않으시고 옳은 길이라면 돌아서라도 가시는 성준경 장로님! 요즈음은 안식년을 맞이하여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신앙의 재충전을 하시는 중이다

성 장로님은 양반 가문과 재산을 자랑하는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가산을 모두 쓰신 선친 때문에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한문과 논어를 먼저 배우고 6.25 때에는 서당에서 공부했으며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으로 유교적 가풍 가운데 교육을 받았다.

1970년, 직장 동료였던 장남회 권사님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슬하에 기윤, 기원, 기언 삼 남매를 두었다. 성 장로님은 아버님께서는 때때로 회초리로 좋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리며 가르치셨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생각하였다.

그리고 1974년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으면서 "금년부터는 우리 모두 교회에 나갑시다."라는 말 한마디가 성 장로님 가정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매주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을 뿐 구원의 확신은 없었다고 한다. 암수집사가 됐어도 가정이나 회사에서처럼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여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참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여시기 시작하시며 이종윤 목사님에게 인도하셨다. 예배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하나님님이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주신 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나서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교회에 나가게 된 것도 내 밭로 나간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먼저 믿으신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성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96년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금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장로님이 되셨다.

늘 겸손하시며 겸소하신 장로님은 매사가 성경적이어서 가정에서도 그 강직함 때문에 타협이 힘들다고 장남회 권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신다.

가정의 가훈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믿음의 계대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옮기시는 장로님의 가정의 모습이 훈훈하고 아름답다.

첫째 아들 기윤씨는 한국 과학기술원에서 마지막 박사코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둘째 기원씨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정성국 전도사의 사모로 복음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새댁이다. 성 장로님께서는 민족 복음화의 기수가 되는 서울교회를 꿈꾸시며 전도의 큰 뜻을 두고 밤낮 기도 하시며, 안식년이지만 임마누엘 찬양대 알토 파트 성경공부 교사로 수고하신다.

장로님께서 즐겨 부르시는 찬송은 98장으로 세상이 힘드실 때 혹 낙심 될 때 진정한 친구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위로 받으시며 새 힘을 공급받으신단다.

겉모습은 점점 왜소해지고 빈약해 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성 장로님은 겉도 속도 풍성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이종윤 목사님의 인도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신다고 소박하게 웃으시는 장로님의 미소는 예수님을 닮았다.

신동기(편집부)

나의 하나님

고난주간, 청년의 고민

노창훈 성도(청년부)

요즈음 젊다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느낌'입니다. "느낌이 왔어!"라는 말은 일반적인 '좋다'의 의미를 넘어 자신의 모든 지성, 감성, 의지가 느낌이 온 바로 그 대상에 온통 몰입되어 있다는 표현이며, "느낌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고난. 예수님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생의 나이만큼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져이지만, 고난 주간을 맞는 나의 고민은, 부끄럽게도, 바로 이 '느낌'이 왜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피를 깊숙이 찌르는 가시, 거친 대못이 질긴 피부를 뚫고, 뼈를 부수며 나무 십자가에 박히는 고통, 수 시간동안 지속되는 이 극심한 고통. 이 고통이 왜 나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아무리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연상해도 그 고통이 전달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그 당하셨을 고난에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가... 하는 고민이 매 해 반복되어 왔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로서, 그 고난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은 꽤나 괴로운 일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칼로 자해하며 이 고난을 체화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천의 용기는 없습니다만) 혹시 이 방법이 예수님의 고난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최근 나온 '그리스도의 수난'이라는 영화가 예수님의 고난 장면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얘기에, 그러면 그 영화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느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영화 개봉일을 기다려도 좋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이 고난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을 하나 더 주시기를, 그리하여 그 고통을 통해 나의 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바닥까지 살피어 올는 깊은 회개를 경험하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는 것이 서른 살 청년의 소망입니다.

천국시민양성 - 서울성경대학 개강하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자...

3월 29일부터 서울성경대학이 개강을 한다. 전교인들이 한 강좌 이상을 수강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도록 하자.

• 롯기 - 강사: 이성득 목사

롯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헤세드(은혜, 자비, 사랑), 하나님의 백성간의 사랑(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롯과 나오미, 보아스와 롯, 하나님과 신앙공동체 개인), 자손의 회복(보존)이다. 롯기는 이방여인의 사랑과 자비를 통속적인 차원을 뛰어 넘어 새롭고도 달콤함과 동시에 신앙적인 사랑 이야기로 승화시켜 사랑은 복의 열매이며 이방 땅에서의 짖주림과 희망이 없는 삶에서, 구원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어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과의 백성으로 사랑하신다.

• 갈라디아서 - 강사: 이태훈 목사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는 데는 예수를 믿는 믿음 이상의 것 곧 유대적 의식들, 특히 할례도 역시 불가결하다고 하며 갈라디아를 다니며 이방인들도 구원의 한 방법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따라서 바울의 복음은 간접적으로 전수된 것이며 그는 단순히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힘쓰며 만약 조건만 부합하면 자신도 할례를 전한다고 주장함으로 바울의 신뢰성에 도전을 하였다.

갈라디아서는 "종교적 자유의 대현장"이라고 불려온 서신서이다. 본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할 수 있다. 본서를 통하여 율법과 분리된 믿음에 의해 의로워진다는 이신들의 칭의 교리는 교회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었다.

• 전도서 - 강사: 오정식 목사

전도서는 육기, 잠언과 함께 지혜서라고 일컫는다. 솔로몬이 짓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했다면 잠언은 장년기에 기록했고, 전도서는 황혼기에 기록하였다. 전도서는 지나간 인생을 반추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이야말로 진정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임을 고백하는 말씀이다. '전도서'란 뜻은 히브리어로 '코렐레트'로 전도자, 설교자란 뜻인데, 이는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온 삶의 진실을 고백하

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심정을 설파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그 어떤 말씀보다 우리의 심령을 뭉클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내게 한다. 솔로몬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실패의 체험에서 얻은 인생의 참 진리와 행복에 대한 교훈을, 자신의 체험을 솔직히 고백 중언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이 곧 전도서의 결론이다.

• 예레미야 - 강사: 이규정 목사

예레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이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밝혀 당시 유다 백성들은 물론 이후 세대의 성도들에게 죄악된 인본주의적인 삶을 경계하고자 함이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하였던 때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와 그 성취,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하였다.

예레미야서의 중심 주제는 선민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의 도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아담의 타락 아래 전 인류가 스스로는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부폐를 말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모든 세대에 경종이 된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운행,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간 개개인의 삶에 세심히 관여하는 분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이 범죄 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그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증거 하신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월 1일(목) 비전2020 운동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이사 유영준 집사, 김은미 집사: 강남구 도곡1동 현대A 2/1209 375-1324
박안구 집사, 강미령 집사 가정(1교구) 579-6797
김홍두 집사(9교구) 3437-1557
- 전화번호변경: 지혜영 전도사 406-9783
- 주간 식당봉사: 에스더 여전도회(3월 28일) 한나여전도회(4월 4일)
- 금주의 식사: 박순옥 권사 가정 (봉사에 감사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국립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산나 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tv)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I 부 오전 11시
예 배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제12차 침 칭찬 학제 미나에 초청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의 교역자 위하여
-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학교 학생이 되고 전도대원이 되도록
- 서울 성경대학, 주부대학, 경로대학,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4. 15총선이 공명선거가 되어 바른 지도자, 비전있는 지도자가 뽑히도록